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 징수조례폐지조례안</u></p> <p>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</u></p> <p>1. 제안자 ○ 서울특별시장</p> <p>2. 제안이유 가. 현행 교통사업특별회계가 “교통관리계정” “혼잡통행료관리계정” “교통방송운영계정”의 3개 계정으로 구분·운영하고 있는 것을 “혼잡통행료관리계정”을 “교통관리계정”에 흡수하여 회계운영의 효율성 및 탄력성을 확보하고 나. 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” 개정과 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” 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골자 가.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을 폐지하고 이를 교통관리계정에 흡수(안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) 나. “자동차운수사업법”에 근거하던 것을 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”과 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”에 근거하고자 함.(안 제4조제1항)</p> <p>4. 검토요지 가. 혼잡통행료관리계정 폐지(안 제2조) ○ 혼잡통행료관리계정 설치배경 도시교통량 감축을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혼잡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 교통혼잡지역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, 이 징수수입을 대중교통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1996.10. 조례제정으로 남산 1·3호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해 왔으며, 이에 따른 수입을 대중교통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1997. 9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“혼잡통행료관리계정”을 신설하고 별도 관리하여 왔던 것임. ○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 -세입</p>	<p>혼잡통행료,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금 -세출 공영버스운영, 시내버스공영화에 따른 사업,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·장비의 투자, 시내버스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필요한 사업</p> <p>○ 이와같이 혼잡통행료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및 운영개선을 위해 지출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'98년 동 계정에서 혼잡통행료수입은 전체수입의 33%인 138억5천만원, '99년 예산 395억4천만원중 35%인 140억3천5백만원으로 혼잡통행료 수입에 따른 별도 계정의 설치 명분이 약하고 ○ 계정을 세분화하는 경우 교통관리실이 전체 교통정책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. ○ 그러나 혼잡통행료징수의 목적이 승용차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라는 2가지 측면에서 실시되었고, 이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통행료 징수수입은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에 투자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므로, 혼잡통행료징수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음. ○ 한편,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본 계정을 폐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, IMF 이후 경제가 정상화될 경우 승용차 이용이 급증하고, 이에 따른 혼잡통행료 제도를 확대 실시할 경우와 앞으로 버스구조조정사업 등 버스관련 대책에 따른 예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서울시가 승용차 이용 억제,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이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별도의 계정이 필요한 면도 있다고 생각함.</p> <p>나. 근거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(안 제4조) ○ 본 조례가 “자동차운수사업법”에서 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” 및 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”에 근거하게 되어 관련조문을 정리하였음. 다. 혼잡통행료관리계정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</p>
---	---